웃음이 희망입니다

KBS N

KBS drama KBS joy KBSN SPORTS KBS W KBS Kids KBSN LIFE

KBS N magazine

VOL.18 SEPTEMBER. 2017 KBS N

KBS N magazine

VOL.18 SEPTEMBER. 2017 KBS N

한국방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조성과 전문성을 키워 뉴미디어를 선도하며,
급변하는 미래 방송 환경을 주도하는 일류
방송기업으로 도약해나가고 있습니다.

04
Intro
가실의 계절
다시 새로운 결말을 맺어가다!

06
N focus
KBS N-KT스카이라이프
독도사랑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08
N special 1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KBS N의 새 얼굴들을 만나다!
권영태 콘텐츠본부장 / 박종복 대한민국스포츠100주년 사업추진단장

10
N special 2
생생한 야구 소식을 전하는 야구 매거진의 원조!
〈아이러브베이스볼〉 생방송 현장을 가다!

14
N contents
이른둥이 응원 캠페인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세요"

16
Review
신속, 정확, 열혈 청춘배달극!
〈최강배달꾼〉

18
Delicious Life
최고의 맛과 영양을 품은
탱글탱글한 가을 맛, 제철 음식 굴

20
N news
친환경 기업 효성과 함께하는
KBS N-해피빈 공동 캠페인

22
Notice
〈레벨업 프로젝트〉 시청 인증 이벤트,
〈KBS N 매거진〉 독자 이벤트

9월의 또 다른 이름인 '열매달'.
'가지마다 열매 맺는 달'이라는 뜻처럼
알찬 결실을 맺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Cover Story
대한민국 야구 매거진의 원조 〈아이러브베이스볼〉 생방송 현장에서 만난 이용철 해설위원, 최희 아나운서, 안치용 해설위원(왼쪽부터).

www.KBSN.co.kr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7. 9. 4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455
기획 정책기획팀 정윤재, 손영주
제작·디자인 DNC www.thednc.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소식지에 대한 의견이나 기사 제보는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 pr@kbsn.co.kr

창의적인 기업문화와 트렌디한 정보가 담긴 KBS N 매거진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세요.
www.kbsn.co.kr/magazine.do

가실의 계절,

가실은 '추수하다'라는 뜻의 방언이자, 가을의 어원이 되는 순우리말입니다.

다시 새로운 결말을 맺어가다!

autumn

어느새 일상 곳곳에 가을의 흔적이 가득히 뿌려져있는 9월입니다. 주변의 평범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 그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는 것을 보는 황홀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가실은 '추수하다'라는 뜻의 방언이자, 가을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실에서 가슬로 그리고, 지금과 같은 가을로 이름이 바뀌어 온 것입니다.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인 가을, 농부들은 9월이 되면 가을걷이라 하여 곡식을 거두어 수확을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바쁘게 지나온 사람들 또한 각자의 삶에서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후회되는 일, 반성해야 할 일들을 솎아내며 인생의 가을걷이를 통해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가을걷이 중 가실할 것이 풍요롭지 않다고 안달할 필요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순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순 있다." - 카를 바르트

가을을 평범한 환절기가 아닌 인생의 전환기로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의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결말을 만들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우리의 영토를 지키다!

KBS N - kt skylife 독도사랑 캠페인 업무협약 체결

⊙ 굿샵 캠페인 전용관 개설, 크라우드 펀딩, 독도원정대 발족

왼쪽부터 KBS N 송전헌 부사장, KBS N 이준용 사장,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사장, KT스카이라이프 류신호 융합사업실장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60여 종의 식물과 160여 종의 조류 및 다양한 해양식물의 서식지인 독도. 우리 고유의 영토이자 소중한 유산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KBS N과 KT스카이라이프가 독도사랑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별한 독도사랑의 기점이 될 KBS N의 독도사랑 캠페인을 소개한다.

독도사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공동 실시!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KBS N과 KT스카이라이프가 손을 맞잡았다. 두 기업은 다양한 독도 관련 홍보 경로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독도사랑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8월 14일 KBS N 3층 대회의실에서 KBS N 이준용 대표이사, 송전헌 부사장, KT스카이라이프 이남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은 성공적인 캠페인 운영을 위한 협약 내용 소개와, 독도사랑 캠페인 홍보영상 시청, 업무협약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양사의 독도사랑 캠페인은 단발적인 일회성이 아니다. KBS N은 KBS가 제공해온 공공기관 및 전국 1,300여 곳의 초·중·고등학교에 모니터를 설치해 실시간 독도의 모습을 위성중계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독도 실시간 영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또한 2015년부터 UHD 원정대를 통해 독도 등 도서산간지역에 UHD 방송을 보급하며 다양한 공공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업의 이러한 독도 사랑 캠페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확장시켜나가는 기회로, 독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들이 독도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를 더 가깝게 느끼고 지키는 방법!

KBS N–KT스카이라이프는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서나! 우리 땅 독도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카이라이프 굿샵 내 독도 사랑 캠페인관 구축, 독도 실시간 영상관 설치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등의 굵직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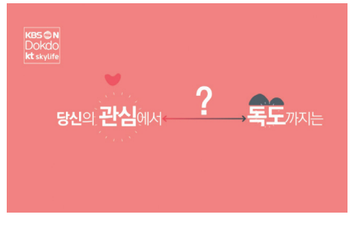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월 11일 TV채널 연동형 데이터방송 서비스인 굿샵(goods#)에 <KBS N–KT스카이라이프 독도사랑 캠페인> 전용관을 개설했다. 시청자들은 KBS N Life 채널의 '독도 사랑 캠페인관'을 통해 TV 리모콘으로 캠페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굿샵(goods#)

또한 독도를 더 가깝게 만나고 싶어 하는 단체나 기관에 무상으로 독도 실시간 영상을 지원하는 '영상관 보급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할 계획이다. 펀딩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들은 굿샵을 통해 '독도 실시간 영상관' 크라우드 펀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펀딩에 참여한 후원자들 중 독도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독도원정대를 발족하고, 독도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모든 국민들이 더 가까이에 독도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KBS N 이준용 사장은 "제72회 광복절을 맞아 '독도사랑캠페인'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우리 땅 독도가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KBS N과 KT스카이라이프가 함께하는 독도사랑 캠페인 영상



N special 1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권영태 콘텐츠본부장 / 박종복 대한민국스포츠100주년 사업추진단장

KBS N의 새 얼굴들을 만나다!

2017년 하반기 권영태 콘텐츠본부장과 박종복 대한민국스포츠100주년 사업추진단장이 KBS N과 함께 하게 되었다. 앞으로 KBS N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두 사람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았다.

삶에 위로가 되는 KBS N만의 콘텐츠를 찾아서

권영태 콘텐츠본부장

- KBS 안동방송국장
- KBS TV본부 예능국 CP
- KBS 콘텐츠본부 예능국 팀장
- KBS 대구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KBS N 콘텐츠본부의 새 수장은 삶 속의 예능, 예능 같은 삶을 추구해온 사람이다.

권영태 콘텐츠본부장은 1989년 KBS에 입사해 오랜 세월 예능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모든 방송프로그램 중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서세원쇼-토크 박스〉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낮은 시청률로 고전했던 프로그램도 있다. 시청률이 높지 않아 좌절할 때는 동료, 선후배들과 이야기하며 고민과 애환을 나누는 시간이 힘이 됐다.

"프로그램을 맡으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이야기하는 과정도 중요해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반응이든 한 마디, 한 마디가 힘이 되죠. 가장 오래 한 프로그램은 〈전국노래자랑〉인데 예능 PD에게는 통과의례 같은 작품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정이 컸어요."

권영태 콘텐츠본부장은 콘텐츠의 수익과 품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KBS N에서 새롭게 맡은 자신의 역할이 구성원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됐으면 한다. 그가 보는 KBS N은 이미 견고하고 탄탄한 조직이며 시스템 또한 잘 정비된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포츠, 드라마, 예능, 어린이 등 다양한 채널이 조화롭게 발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KBS N이라는 브랜드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을 넘어서 대외적으로는 KBS N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권영태 본부장에게 주어진 임무는 막중하다. 과중한 부담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는 노래를 읊조리고 색소폰을 연주하고 책을 읽는다. 그 여유와 긍정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고 싶다는 바람이다.

> "인간관계에서든 일에서든 덕을 쌓고 싶어요.
> 그러자면 저부터 여유를 가져야 하고 행복해야겠죠."

> "우리나라 스포츠 방송에 있어서 선구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온 KBS N.
> 우리 안의 DNA를 믿고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스포츠 DNA를 사랑하다

박종복 대한민국스포츠100주년 사업추진단장

- KBS 보도본부 스포츠국 스포츠기획부장
- KBS 보도본부 스포츠국 스포츠사업부장
- KBS 보도본부 스포츠국 스포츠취재부장

KBS N은 대한민국 스포츠 100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한 이유로 박종복 대한민국스포츠100주년 사업추진단장은 취임하자마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박종복 단장은 1994년 KBS 스포츠 전문기자로 입사해서 취재, 제작, 기획, 사업 등을 두루 경험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그가 방송사에서 처음 도입하는 스포츠 전문기자를 지원한 이유는 스포츠가 좋아서였다.

박종복 단장은 스트라이커가 혼자서 골을 넣을 수 없듯 모든 구성원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야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스포츠취재부, 스포츠사업부 시절 조직을 이끌었을 때 자기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을 중시했다. 충분한 보상으로 잘한 사람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하는 신상필벌의 원칙도 중시한다. 본격적으로 사업단을 조직하고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동안에도 지키고 싶은 리더십의 원칙이다.

KBS N의 대한민국 스포츠 100주년 기념사업은 KBS N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수익성도 높여야 하는 사업이다. 박 단장은 빠르고 정확한 보도로 스포츠 분야에서 방송뉴스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는 자부심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다만 현장을 취재하든 뉴스를 제작하든 지금까지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새로운 사업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한다.

"방송프로그램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 100년사를 돌아보고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해 발전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방송에 있어서 선구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온 KBS N이기에 우리 안의 DNA를 믿고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한 야구 소식을 전하는
대한민국 야구 매거진의 원조

생방송 현장을 가다!

〈아이러브베이스볼〉 생방송 스튜디오 현장

2017 프로야구 대장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시즌 개막 이후 7개월간 야구와 함께 쉴 새 없이 달려온 〈아이러브베이스볼〉도 숨을 고를 시간. 9년간 이어온 정통성 있는 야구 매거진 〈아이러브베이스볼〉의 현장을 찾아 야구로 뭉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희 아나운서, 이용철 해설위원, 안치용 해설위원이 들려주는 2017 야구 이야기와 〈아이러브베이스볼〉에 대한 진솔한 대담.

- 최희 아나운서(이하 최)
- 이용철 해설위원(이하 이)
- 안치용 해설위원(이하 안)

Q. 2017 시즌 마무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자 소감이 남다르실 거 같은데요.

● 최희 아나운서(이하 최)_ 다시 시작할 때만 해도 걱정 반, 부담감 반이었는데 3년간의 시간이 안 느껴질 정도로 주변에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적응도 잘 한 것 같아요. 이용철 위원님과는 워낙 오래 알고 지내서 호흡도 잘 맞았고요. 안치용 위원님은 한마디로 방송 체질이시죠.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기가 어려운데, 모니터를 해보면 편안함이 느껴져요. 방송을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아이러브베이스볼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 이용철 해설위원(이하 이)_ 제가 보기에 희에게 전보다 '욕심'이 생긴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욕심이란 단어에는 많은 게 포함 되어있죠. 준비하는 과정과 생방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전보다 확실히 아이러브베이스볼에 대한 열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치디(안치용 위원)를 비롯해 조캡(조성환 위원), 쓰나(장성호 위원)까지 해설위원 후배들이 제각각 다른 색깔의 매력이 있어 올해 아이러브베이스볼이 재밌게 꾸며진 것 같아요.

● 안치용 해설위원(이하 안)_ 올해로 3년째 해설을 맞고 있는데 확실히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방송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이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Q. 아이러브베이스볼만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 안_ 저는 공개방송을 매력으로 꼽고 싶은데요. 다른 방송사 해설위원님으로부터 5월 5일 어린이날 특집 공개방송을 보고 재밌었고, 또 부럽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린이날 공개방송을 하면서 야구를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야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이_ 아이러브베이스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정통성'에 있다고 봅니다. 정통성을 지키자는 흔들리지 않는 취지와 신념으로 작가진과 위원들, 제작진들 모두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록실코너, 4D 리플레이 운영, 남이 하지 않는 걸 많이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라, 매력은 100가지라도 꼽을 수 있죠.

● 최_ 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러브베이스볼이 야구 매거진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려고 하고, 좀 더 공정한 시선으로 야구를 전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또 현장에 갔을 때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아이러브베이스볼을 좋아하고 잘 본다고 했을 때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보람이 들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Q. 이번 시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안_ 지난 7월 인천에서 열렸던 기아와 SK 경기. 4회까지 SK가 12-1로 앞서나가서 경기 2회, 3회 때부터 대본 작성해놓고 있었는데, 5회에 기아가 12점을 따냈죠. 결과는 17-18로 기아의 재역전패. 제작진 모두 당황했던 경기였고, 아마 처음으로 방심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 최_ 저는 아이러브베이스볼 생방송 날이었는데, 김도환 기자님이 선물 받은 클렌징을 꿀차인 줄 알고 마셨다가 응급실 다녀오셨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있어요. 계속 거품이 올라온다고 하시면서(웃음). 평소에도 엉뚱하긴 하지만 방송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때 벌어진 일이라 아찔했었죠.

Q. 그날그날 날씨와 야구경기에 따라 생방송 준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준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 최_ 데일리 프로그램이다 보니 컨디션 조절하는 게 MC로서 중요한 부분이구요. 또 그날의 경기를 임팩트 있는 주제로 정리해서 전달해야 해서 작가들과 매순간 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 이_ 8회쯤부터 생방송을 준비하는데, 역시나 경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하니 항상 긴장감이 있어요. 수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곧 프로그램의 신뢰감과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송을 오래 했더라도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 안_ 3시간 반 정도 되는 긴 경기를 5분으로 압축하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8명의 작가들과 회의를 하면서 방송 전까지 준비를 하고, 바로 경기가 끝나자마자 생방송을 시작하는데, 저희는 결과보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직 선수이자 지금은 해설위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풀려나갔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는 게 아이러브베이스볼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아이러브베이스볼이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노력할 테니까 오랜 시간동안 많이 사랑해주신 것처럼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러브 베이스볼
이용철 해설위원

아이러브 베이스볼
최희 아나운서

Q. 가을야구를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포스트시즌 전망을 해주신다면?

● 이_ 가장 무서운 게 전망에 대해 말하는 건데(웃음). 두산이 2위로 시즌을 마감하면 3연패 도전에 가장 근접한 팀이 되지 않을까. 1위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야구경기 특성상 경기 감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2위는 컨디션을 알맞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 두산은 5명의 투수들이 다 특색 있고, 큰 경기를 해봤다는 자신감과 타자, 내야수, 백업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기아와 두산이 맞붙는다면 역대 가장 재밌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당시, 8월 말 순위 상황)

● 안_ 한국시리즈는 요행을 바랄 수 없는 경기들이죠.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선 마지막까지 3, 4, 5위권 다툼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최근 행보를 봤을 때 롯데가 포스트시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엘롯기가 함께 5강에 진출한 게 10년도 넘은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같이 올라가면 어떨지. 선두권을 제외하고 롯데, 엘지, SK, 넥센의 승부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Q. 아이러브베이스볼 이후의 활동 계획과,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 최_ 시즌 끝나면 나름의 개인적인 포상휴가를 다녀오고 싶어요.

● 안_ 저도 해설위원과 국가대표 전력분석팀으로 활동하며 몇 년 간 휴가를 못 갔는데, 가족들과 스탭들과도 함께 휴가를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 이_ 은퇴선수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시즌 끝나도 바쁜 건 여전할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들과 작년에 못 갔던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게 개인적인 계획입니다. 재충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 최_ 아이러브베이스볼이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노력할 테니까 오랜 시간동안 많이 사랑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러브 베이스볼
안치용 해설위원

KBS N과 유한킴벌리가 함께하는

이른둥이 응원 캠페인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세요”

KBS N과 유한킴벌리는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른둥이 가정과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른둥이 응원 캠페인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세요”를 진행하고 있다.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작된 시리즈는
〈이른둥이 1편: 효주이야기〉를 시작으로 총 3명의 이른둥이들의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른둥이 1편 : 효주이야기

32주 3일 만에 1.3kg의 작은 몸무게로 세상에 나온 효주는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받으며 인큐베이터에서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다. 일반적인 임신기간은 40주. 하지만 출생 예정일보다 2개월이나 먼저 세상의 빛을 본 효주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 인큐베이터 속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효주처럼 체중 2.5kg 미만,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세상에 조금 빨리 태어난 아이들을 일컬어 ‘이른둥이’라고 한다. 이른둥이들은 면역체계가 약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폐, 뇌, 심장 등 신체장기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발달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생후 3년까지 집중치료와 부모, 가족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데 이어 늦은 결혼으로 인한 고위험 임신 등의 이유로 이른둥이가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른둥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는 미비한 상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강한 사회적 안전망 만들기의 작은 시작이 될 이른둥이 응원캠페인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세요”. 효주와 같은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응원의 싹을 틔워내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이른둥이 응원 캠페인 ‘효주 이야기’

KBS N과 유한킴벌리가 함께하는 이른둥이 응원캠페인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세요”

유한킴벌리는 이른둥이 응원캠페인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세요”와 함께 이른둥이들을 위한 초소형기저귀를 본격 생산하여 2.2kg 미만 신생아들을 위해 기저귀를 향후 3년간 무상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른둥이 집중케어실이 있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제공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유아동 쇼핑몰 ‘맘큐’를 통해 신청하면 기저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 영상은 KBS N 페이스북, 네이버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순도 100% 열혈 청춘들의 이야기!

신속, 정확, 열혈 청춘배달극 최강 배달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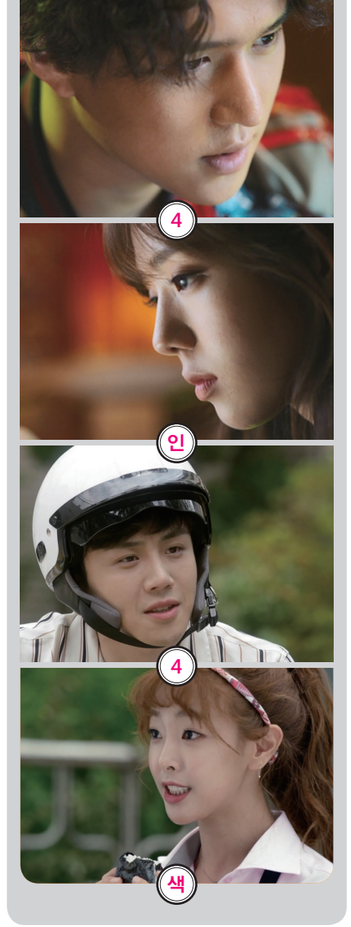
KBS 2TV 금토 드라마

KBS 2TV 금토드라마 〈최강 배달꾼〉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금토 심야시간대를 책임지고 있다. 매회 빠른 전개와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로 몰입도를 높여가고 있는 〈최강 배달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향해 달려가며 뜨거운 열정과 긍정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최강 배달꾼 최강수와 이단아는 과연 그들이 꾸었던 꿈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

가진 거라곤 배달통뿐?! 세상과 한 판 뜨는 흙수저들의 좌충우돌 성장기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통쾌한 인생 뒤집기 한 판을 그린 청춘배달극 <최강 배달꾼>은 '희망 1도 없는 세상과 맞짱 뜨는 순도 100%의 열혈 청춘들'의 진취적이고 유쾌한 스토리로 젊은 층을 끌어모으고 있다.

<최강 배달꾼>은 중국집 '팔팔수타'를 배경으로 짜장면 배달부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힘겹게 버텨내는 흙수저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젊음의 힘을 담은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는 전우성 PD의 말처럼 <최강 배달꾼>은 작은 일에도 좌충우돌하는 청춘들의 모습 속에서 이른바 흙수저들의 암담한 현재를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세상과 당당히 맞서는 통쾌함을 선사한다.



〈최강 배달꾼〉은 중국집 '팔팔수타'를 배경으로 짜장면 배달부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힘겹게 버텨내는 흙수저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4인 4색 개성 강한 배우들의 호연으로 볼거리 가득!

<최강 배달꾼>은 특히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열연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고경표는 '착하게 살자'가 인생의 좌우명인 5년 차 떠돌이 배달부 최강수 역을 맡았다. '오지라퍼' 최강수와 티격태격 케미를 보여주는 여자 배달부 이단아 역은 채수빈이 연기한다. 여기에 찌질한 재벌 3세 오진규(김선호 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정가'의 딸인 금수저 이지윤(고원희 분)까지 4명의 인생이 저마다의 인연으로 엮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터진다. 골치 아픈 이 땅을 떠나고 싶은데 계속 발목 잡는 일만 생기는 이단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이지윤과의 결혼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오진규, 계속 자신을 밀어내는 최강수를 좋아하는 이지윤, 이송이 늦어 혼수상태에 빠진 동생의 사건을 파헤치다 도리어 자신이 수갑을 차고 잡혀가게 된 최강수까지 여러 가지 스토리 라인이 겹쳐지며 궁금증을 자내고 있는 <최강 배달꾼>. 중반을 넘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는 <최강 배달꾼>은 앞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상권을 장악하려는 '정가'와 배달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상인들을 지켜내려는 강수(고경표 분)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열혈 청춘들이 세상과 싸우며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발랄하고 유쾌한 성장기 <최강 배달꾼>은 KBS drama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

〈최강 배달꾼〉을 만나는 시간!
방송시간 KBS drama 매주 토, 일 오후 3시 30분 방송

KBS drama

최고의 맛과 영양을 품은

탱글탱글한 가을 맛, 제철 음식 굴

바다의 우유로 불릴 만큼 완전식품으로 손꼽히는 굴은 가을을 대표하는 제철 재료로, 9월부터 찬바람 부는 겨울까지 제법 긴 시간동안 싱싱하게 즐길 수 있다. 가을을 맞아 향긋한 바다 내음 가득 품은 굴을 더 특별하고 맛있게 먹는 법을 요나구니 스스무 셰프에게 들어보았다.

KBS Joy 격식 파괴 요리쇼 〈한끼의 품격〉(2015년 방영)에서 판정단으로 활약한 퓨전 요리 대가 요나구니 스스무가 제철 가을 요리로 추천하는 생굴과 4가지 소스.

요나구니 스스무 셰프는?

20여 년간 런던, 뉴욕, 일본 등에서 요리 실력을 쌓고 2000년 초반 한국에 정착했다. 영국 활동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 참석 파티음식을 만들고, 뉴욕 레스토랑에서 아시아인 최초 부주방장이 되어 뉴욕타임즈에 소개되었다. 요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는 요리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굴의 부드러운 촉감을 즐기는 프랑스식 조리법

미식가들에게 9월은 굴을 먹을 수 있는 계절이 왔음을 의미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으로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굴은 고급 음식이지만, 유독 한국인들에게만은 푸대접을 받는다. 식당의 반찬에서 흔히 볼 수 있어서겠지만 여전히 굴이 지닌 가치만큼 대접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의 대표 메뉴에 자주 등장하는 굴은 나 역시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시즌이 되면 굴을 이용해 파스타와 리조토를 넣은 코스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자주 받는다. 굴을 이용한 여러 조리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굴이 가진 최고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프랑스식을 추천한다. 산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생것 그대로 반쪽으로 까 얼음 위에 얹고 기본 소스를 곁들이면 된다. 굴의 향과 혀에 흐르는 촉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거운 소스나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먹기 직전 레몬즙을 뿌려먹거나, 프랑스에서 즐겨먹는 매콤한 타바스코 소스, 또는 오랜 고전인 초고추장도 추천한다. 케첩에 홀스래디쉬, 레몬즙, 타바스코 소스와 우스터(간장)소스를 약간씩 넣고 섞으면 완성되는 칵테일 소스도 굴과 잘 어울린다. 마지막으로 레드와인 또는 화이트와인 비네거에 다진 샬롯(양파), 후추를 섞어 뿌려먹는 것도 색다르게 굴을 즐기는 방법이다.

칵테일 소스

샬롯 와인 비네거 소스

레몬즙

초고추장

생크림이 들어가 더 고소한 '굴 파스타'

(굴 록펠러)

재료 석화 12개, 허브 빵가루(다진 파슬리+파마산 치즈가루+빵가루)

만들기
1. 버터 1큰술+다진 양파 1큰술+다진 마늘 1/2작은술+소금, 후추를 약간씩 넣고 섞는다.
2. 허브 빵가루에 다진 파슬리와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고 고루 섞는다.
3. 석화에 1의 버터를 적당량 올린 뒤, 허브 빵가루를 수북이 올려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노릇해질 때까지 약 20~25분간 구우면 완성.

(굴 파스타)

재료 굴, 마늘, 아스파라거스, 생크림, 고르곤졸라치즈, 파마산 치즈가루, 스파게티 120g, 소금, 후추, 포도씨유 약간씩

만들기
1. 묽은 소금물에 흔들어 씻은 굴의 물기를 뺀다. 얇게 썬 마늘과 어슷 썬 아스파라거스를 준비한다.
2. 달군 팬에 포도씨유와 마늘을 넣고 향을 내어 볶다가 굴과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볶는다.
3. 2에 생크림 1/2컵을 붓고 한소끔 끓으면 6분간 알덴테 상태로 삶은 스파게티면을 넣고 함께 볶는다.
4. 소스가 적당히 졸아들고 면에 맛이 배이면 파마산 치즈가루 2큰술, 고르곤졸라 치즈 1작은술을 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뒤,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낸다.

건강의 상징이자 아름다운 생명체인 굴

사랑과 미의 신 아프로디테로부터 시작된 명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은 벌어진 굴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비너스를 보여준다. 비너스는 사랑의 신 에로스(큐피드)를 낳는다. 바이런, 나폴레옹과 아침식사로 하루 50개의 생굴을 먹었다고 하는 카사노바까지 많은 사람들이 굴의 효능을 믿고 생굴을 즐겨왔다. 실제로 2005년 미국과 이태리 과학자들의 공동연구에서 굴은 성적 호르몬을 증대시키지만 생굴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른 이야기지만 2012년 7월 영국남부 해안가에서 145만 년 전 굴 화석이 어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MRI를 통해 본 것은 골프공 크기로, 세계에서 최고로 큰 진주라 밝혀졌지만 연구를 위해 원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식용 굴과 진주 굴은 생리부터 다르다. 식용 굴은 이물질이 들어오자마자 뱉어내지만, 진주 굴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특유의 합성체로 감싸 진주를 만들어낸다. 최고의 맛과 영양을 품고 있는 음식이자, 고귀한 보석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생명체이기도한 굴. 올 가을엔 여러 이야기를 품고 있는 굴을 오감으로 즐기며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

굴의 진항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굴 록펠러'

친환경 기업 효성과 함께하는

KBS N-해피빈 공동 캠페인 “미세먼지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실천”

HYOSUNG
해피빈

효성과 KBS N, 해피빈이 다음 세대 우리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현직 스포츠 선수, 해설가, 아나운서가 캠페인 스피커가 되어 평소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실천(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 2부제 지기키 등)에 대해 이야기를 전하며 미세먼지 개선 인식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및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국내외에서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제2의 야구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前 SK와이번스 이만수 감독이 ‘위대한 실천’ 공동 캠페인의 첫 스피커로 나선다.
KBS N은 4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을 제작 방영하고, 해피빈은 이 영상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보를 게재하고, 네티즌의 실천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KBS N-해피빈 공동 캠페인은 KBS N 채널과 네이버 해피빈 PC&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지속성장 가능한 회사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인재경영

〈N클래스〉 교육 클리핑 실시

KBS N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적 인재경영이 시작됐다. KBS N은 2017년 하반기부터 회사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추진 전략으로 〈N클래스〉 교육클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N클래스〉 교육클리핑은 매주 월요일 전 임직원에게 배포되며 ‘비즈니스’, ‘트렌드’ 2가지 주제로 제작된다. ‘비즈니스’ 분야는 회사전략, 위기관리, 리더십, 성공사례 등 경영 일선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이며 ‘트렌드’ 분야는 산업, 문화, 인문, 생활, 복지 등 최신 교육 콘텐츠이다.
〈N클래스〉는 고성과를 창출하는 즐거운 조직문화 구축 정책 ‘드림 N 트리’ 中 교육 분야의 한 줄기로써 향후에도 다양한 신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KBS N,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야구대회 후원에 나서

KBS N이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야구대회 후원에 나선다. 딜라이브 케이블TV기 야구대회는 2017년 9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서울시 광진구 구의 야구공원에서 개최되며 서울시내 23개 초등학교 야구팀이 참가한다. KBS N은 매년 대회 후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1,300만원 상당의 야구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나운서 야구장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진행

KBS N 아나운서들이 시청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야구장을 직접 찾아 페이스북을 통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 팬들과 함께 경기를 관전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이벤트는 지난 6월 27일 잠실야구장과 8월 17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KBS N 아나운서들의 사인볼 증정, 퀴즈, 포토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져 관전의 재미를 더했다.

〈KBS N 인사〉
2017년 8월 9일자 취임 ▶ 권영태 콘텐츠본부장, 박종복 대한민국스포츠100주년 사업추진단장

레벨업 프로젝트 이벤트

LEVEL UP PROJECT Red Velvet

레드벨벳 첫 단독 리얼리티 <레벨업 프로젝트> 시청 인증 이벤트!

KBS joy 채널에서 레벨업 프로젝트 방송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인증샷을 # 7733(유료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레드벨벳 사인 앨범을 드립니다!

응모 방법

1. KBS N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하기
2. <레벨업 프로젝트> 방송의 '우상단 이벤트' 창을 찍어서 # 7733으로 전송

※ KBS N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 '친구 소환'을 하면 당첨 확률 UP&UP

레벨이들 사진찍고
문자 보내면 레드벨벳 사인앨범이 땅!

● **응모 기간** : 9월 8일(금)까지 ● **당첨 발표** : 9월 13일(수) ● **당첨자** : 총 6명

Gift for you!

독자 이벤트

독자들과 소통하는 KBS N!
KBS N 매거진을 보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000

* 상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2만원 권)

좋았던 기사나, 표지에 대한 인상 등을 자유롭게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과 소중한 의견을 다음 호에 실어드립니다.
pr@kbsn.co.kr / 당첨자는 2017년 10월 개별 통보합니다.

웃음이 희망입니다 KBS N

KBS N은 KBS Drama(드라마), KBS Joy(엔터테인먼트),
KBS N Sports(스포츠), KBS W(여성),
KBS Kids(어린이), KBS N Life(교양, 다큐)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6개의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콘텐츠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KBS N.

다양한 6개 채널을 통해 KBS N만의
즐겁고 유익한 뉴미디어 콘텐츠 세상을
만나보세요.

KBS drama KBS joy KBSN SPORTS KBS W KBS Kids KBSN Life

광고사업, 공연/문화사업, 스포츠사업, 브랜드사업, 키즈사업, 콘텐츠유통사업